

“한-남아공 기후변화·재생에너지 협력”...수교 30주년 세미나

아프리카대륙FTA 활용방안도 논의...현지 대학생 큰 관심 여운기 재단 이사장 “양국 간 인적교류 더욱 확대하자”

올해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난 양국 관계 발전을 되돌아보고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세미나가 23일(현지시간) 남아공 경제중심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다.

이날 한-아프리카재단과 남아공국제문제연구소(SAIIA) 공동주관으로 서던선로즈뱅크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현지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생 등 250명 가량이 참석해 여러 질문을 하며 큰 관심

을 보였다.

여운기 재단 이사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친환경 광물자원 등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 발전 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고 엘리자베스 시디로폴로스 SAIIA 소장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잦아든 시기 양국 간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자고 호응했다.

이 자리에선 특히 양국 관계 발전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용 방안 등 두 분야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한나 새크 SAIIA 연구원은 “최근 서울의 물난리와 앞서 남아공 콰줄루나탈의 홍수 사태는 국가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면서 “아프리카연합(AU)이 올해부터 10개년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짠 만큼 재생에너지에서 남아프리카의 큰 발전 잠재력을 한국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과 5년간 6억 달러(약8천52억원) 한도의 한국-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를 체결한 점을 강조했다.

서상현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아프리카는 오늘날 전 세계 태양광 패널(PV) 설치 용량의 1%밖에 안 되지만 태양광 발전 잠재력은 최대”라면서 “아프리카연합(AU)이 올해부터 10개년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짠 만큼 재생에너지에서 남아프리카의 큰 발전 잠재력을 한국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남아공산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지프 마틀라 SAIIA 연구원은 한국이 다른 지역·국가와 FTA를 17개나 정식으로 맺고 있지만 정작 아프리카 나라와는 한 곳도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AfCFTA를 아프리카 대륙과 장기적으로 견고한 경험 통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에 한국산 선박과 자동차의 아프리카 수출이 두드러진 것뿐 아니라 한국산 기관차 등이 2021년 아프리카 시장의 20% 가까이 차지한 점을 부각했다.

김동석 국립외교원 아프리카중동연구부 부교수는 남아공과 한국은 역사

적으로 식민지 시대와 민주화 경험을 공통 유산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백신 개발 등 보건·바이오 연구로 넓히고 특히 남아공의 조화와 화해, 공존의 정치 모델을 한국도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국과 관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철주 남아공 대사가 남아공 출신 영어교사가 매년 900명씩 한국에 간다면서 향후 양국 청년 교류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자 대학생들이 세미나 후에도 박 대사 주변에 몰려들어 너도나도 사진 촬영을 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포격으로 폐허된 아파트 철거 2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인부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포격으로 폐허가 된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곡물값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으로 하락

밀 등 세계 곡물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 가격이 지난주엔 부셸(곡물 중량단위·1부셸=27.2kg) 당 7.7달러로 올해 2월 전쟁 발발 무렵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석달 전의 12.79달러에 비해 크게 내린 수준이다.

옥수수 가격은 전쟁 전 가격으로 돌아왔고 팥유는 더 내려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2일(현지시간) 밀과 해바라기유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대규모 기근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악의 결과는 피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 배경에 관해 유엔 중재로 우크라이나 곡물이 오데사 항구를 떠나 수출길에 오를 수 있게 된 점은 가격 하락의 한 일부 요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가격하락은 상당부분 그 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그보다는 러시아 밀 수출 확대 요인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농림부에 따르면 2022/23 시즌에 러시아의 밀 수출은 전년보다 200만 톤 늘어난 3천8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올해 초 날씨가 좋

아서 수확이 잘 됐고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기존 수입국가에서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그동안 곡물난 우려가 과도했을 수도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전했다.

투자은행인 르네상스 캐피탈의 찰스 로버트슨은 세계 밀 재고 수준이 극히 높았다는 점을 짚었다.

투기 거래도 가격 변동성의 한 요인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전했다.

곡물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달라와 기준으로는 가격이 내렸지만 문제는 주요 밀 수입국가들의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유럽 가뭄 고통...‘500년만의 최악’ 진단

홍작 넘어 에너지난까지...‘일부지역 몇달 더 지속’

유럽에서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이 덮인 지역이 3분의 2에 달해 500년 만에 최악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유럽(EU)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 조직인 세계가뭄관측(GDO)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부터 유럽 수많은 지역에 가뭄이 발생해 지금까지 악화해왔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8월 10일 현재 유럽 가뭄 상태는 47%가 ‘경고’, 17%가 ‘경계’에 해당했다고 GDO는 분석했다.

GDO는 가뭄 상태를 ‘주의’(watch), ‘경고’(warning), ‘경계’(alert) 등 3단계로 나눈다.

두 번째로 심한 ‘경고’는 땅이 이미 말

라붙은 상태, 가장 심한 ‘경계’는 식물에 악영향이 미치는 상태를 뜻한다.

EU 집행위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유럽 가뭄이 “최소 500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첫 평가 과정일 뿐이며, 추후 최종 자료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행위는 이번 가뭄이 앞으로도 유럽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몇 달 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GDO는 유럽 지중해 지역에서는 현재 상황이 최소 올해 1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뭄과 그로 인한 산불 등의 여파로 콩, 옥수수, 해바라기 위주로 여름철 농

사가 이미 홍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공급을 줄이는 가뭄과 물을 더 빨리 증발시키는 폭염 때문에 유럽 전역의 수위 유치가 전례 없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줄기가 말라붙으면서 수력 발전이 20% 감소해 가뭄이나 고조된 에너지 위기까지 악화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런 상황이 악화하는 국가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헝가리, 세르비아 북부,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일랜드, 영국이 꼽혔다.

GDO는 “기후변화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해마다 더 두드러진다”며 유럽에 닥친 극단적 가뭄의 원인으로 인간 활동을 지목했다.

/연합뉴스

말레이-싱가포르 고속철 백지화 1년여만에 재추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 다시 추진된다.

24일 베르나마통신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최근 싱가포르에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되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부활하기를 바란다며, 양국 교통부 장관이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 모두 고속철도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인어서 사업 재개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美 애틀랜타 도심 총격 사망자 2명으로 늘어난 주민이 콘도 관리인들에게 총격·인질극 벌여

미국 애틀랜타 도심에서 22일 발생했던 총격 사건은 아파트 입주인이 관리인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번 총격사건의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났으며, 여성 용의자가 사건 당일 인근 공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용의자 레이사 캔진(34)이 전날인 22일 오후 애틀랜타 도심 2곳에서 총기를 발사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캔진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도심의 한 콘도 관리사무실에 침입해 총을 발

사, 관리소장 1명을 살해하고 관리인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30분 후에는 다른 콘도 관리사무실에서 총격을 가해 1명을 숨지게 했다.

이어 다른 관리인 1명을 인질로 삼고 자신의 물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인질극을 벌이다가 풀려났다.

그는 총격 2시간 후인 오후 4시께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입주인이 아파트 관리인에게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